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훈



회순 박순철

## 광양시, 원예분야 신기술 보급으로 신성장동력 육성

### 지역 특화작목과 틈새소득작목 발굴·육성 통한 미래농업 선제적 대응 기대



광양시가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위해 원예작물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농산물 과잉 생산과 시장 개방, 기후 변화, 농업 경영비 증가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화작목과 틈새소득작목 발굴·육성 등 신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시범 도입과 생강, 취나물, 수박, 알스트로메리아 등 지역 특화작목을 비롯한 미래농업 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 ▲ 기후변화 대응한 아열대소득 과수 육성

광양시는 연평균기온이 14.9℃로 겨울철이 온난하고 일조량이 전국 최고로 많은 해양성 기후를 지니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아열대과수 재배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육성을 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8억 2천만 원을 투입한 결과 현재 3.3ha 16농가에서 아열대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아열대과수 종류는 백향과(패션후르츠), 애플망고, 부지화, 천혜향, 레드향 등이 있다.

올해는 아열대소득과수 육성에 탄력을 가하고자 1억 6천만 원을 투자해 생산과 유통, 가공 등 6차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1,000㎡규모의 열대과수관을 설치해 애플망고 등 12품목을 시험재배하

고, 품목 발굴과 재배기술 체계 확립 등 새 기술 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광양생강 전국 최고의 특화작목으로 육성 추진

시는 '광양생강'을 지역 특화작목을 넘어 전국 최고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016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공모사업인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3개년동안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2019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생산 위주의 사업으로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생강 비가림 시설재배 실증시험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2016년 16.3ha에서 2017년 18ha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브랜드 규격 박스를 통한 농업 계통출하로 상품의 청결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지난해 11월 8일 10kg 상품 기준 광양 생강 최고 도매가격은 50,000원, 광양 평균 도매가격은 43,600원으로 전국 평균 32,30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는 올해 생산·저장 단계를 보완하고 수확·가공 중심의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지난해 생강 소규모 장기저장시설 개발을 통해 얻은 저장한 종강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내년에 저장시설 보급을 추진한다.

또 신규 사업으로 수확 후 생강 흙을 제거하기 위한 편이정비인 품

프레스 12대 지원,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와 연계한 생강 가공센터 증축과 가공상품 개발, 유통 경쟁력을 위한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생강 홍보관측 등을 추진한다.

#### ▲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시는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강뿐만 아니라 취나물, 수박, 알스트로메리아 등 지역 특화작목을 꾸준히 육성해 나가고 있다.

시는 고품질 취나물 생산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0.3ha로 확대할 계획이며, 시설수박 단지 82ha에는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수정벌을 활용한 자연수정 기술을 지원한다.

또 알스트로메리아 등 화훼류에는 생선비 절감 기술이 투입되며, 취나물과 화훼류에는 규격 박스를 지원해 상품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 ▲ 틈새소득작목 발굴로 농업의 새로운 활로 찾아가

광양의 대표적인 효자 작목인 매실과 애호박이 100억 원이 넘는 조수입을 가져다주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시설원예 증가 등 전국적인 재배면적 확대로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져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틈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올해 딸기 0.4ha와 왕토란 0.7ha를 육성에 기존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갈 계획이다.

특히, 딸기는 수확체량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소득원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명구 기술보급과장은 "시는 광양농업의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예작물 신기술보급 분야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는 아열대과수와 생강 특화작목 육성을 적극 추진해 시의 대표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종권 기자

## '순천만 미나리' 이사천 맑은물 공급사업 통수식 가져

###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친환경 인증 소득 향상 기대

순천시는 최근 도사동 친환경 미나리 재배단지에서 순천만 청정미나리 작목반,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 미나리 이사천 맑은물 공급사업 통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통수식은 총사업비 10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이사천 양물양수장에서 10여km의 용수 관로를 통하여 미나리 재배농가에 1일 2,000톤의 맑은 하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순천만 미나리는 몇 년 동안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물 부족이 심각하여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나리 재배단지 농가들은 이사천 맑은물 공급을 통해 미나리 농가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다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순천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사천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미나리 친환경 인증을 통해 순천만 미나리가 한 단계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0년 전통의 순천만 미나리는 순천을 대표하는 고소득 집락작목이며, 순천만 전체의 환경에서 재배되는 독특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 풍부한 섬유질로 전국 최고의 미나리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순천 중앙동, 新 랜드마크 스마트시계탑 조형물 탄생

### 동남사 카메라 모티브 ICT 융합 시계탑 가동식 열려



순천시 중앙동 시민로에 새로운 명물이 될 ICT융합 시계탑 가동식 최근 상가연합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동 시민로에서 열렸다.

시계탑 외형의 모티브가 된 '동남

사 카메라'는 우리나라 최초로 제작된 카메라로 추정되며 순천시 중앙동 일원에 위치했던 동남사진기 공업사(대표 김철우)에서 1952년부터 생산하여 1962년 상표특허 등록되어 사진전문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조형물은 상부가 카메라의 주름살자의 모양을 본뜨고 전체 크기는 가로 2.3m, 세로 1.5m, 높이 1.1m로 제작되었다.

아날로그 방식의 시계와 대형 모니터로 구성되어 원도심야야기, 관광지 소개 등 생활에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며, 하루 삼각대에는 앱 기능이 가미된 모니터가 장착되어 중앙동 상가지역의 인포메이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시연이 담긴 동남사 카메라를 모티브로 한 스마트 시계탑이 과거와 미래를 엮어주는 중앙동 상가의 새로운 명물이 되어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종명 기자

## 화순고인돌유적지 진입로 황토길 포장

### 능주~춘양면 대신리 유적지 진입도로도 개설

화순고인돌유적지 진입도로가 황토길로 포장되고, 능주~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유적지 진입도로가 개설된다.

화순군은 5억원을 들여 화순고인돌유적지 진입도로를 황토길로 포장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고인돌유적지는 2001년 12월 고창·강화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보존 위주로 관리되면서 도로포장 등이 제한됐다. 때문에 비만 오면 유적지 도로가 패이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군은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3억원, 올해 2억원 등 5억원을 확보해 진입도로를 황토길

로 포장할 계획이다. 구릉권 화순군은 25일 능주면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서 고인돌유적지 진입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지역민의 건의에 대해 "유적지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적지 내 도로는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인 아닌 시대 상황이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개설해야 한다"며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곡면 효신리 고인돌 유적지 입구에 58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선사체험장이 조성되고, 50억원을 들여 세계겨석테마파크를 조성 중이다.

군은 고인돌 유적지를 이룰 체험 시설과 연계해 스토리텔링화 할 계획이다.

능주면 내리~춘양면 대신리 등 고인돌 유적지를 잇는 연결도로도 개설된다.

능주~춘양 대신리를 잇는 도로 개설은 능주면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화순군은 4억 3천만원을 확보해 올해 도로개설 구간의 토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시설비를 확보해 내년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구릉권 군수는 이날 도곡면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선 영락공원(화장정)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올 가을 13개 읍면으로부터 영락공원(화장정) 입지 공모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양삼